

“남북관계 개선시 DMZ 유해발굴”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라며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것은 199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현충원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군인 위주로 묘역이 조성된 서울현충원과 달리 의사상자, 독도의 용수비대, 소방 및 순직공무원까지 묘역까지 조성돼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안치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인정받을 수 없었다”며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 신분 때문에 차별 받고 억울함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분 소방관의 묘비 제작식이 이곳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눈물로 떠남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과 가족들께 각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 믿을 때문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언제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사자의 무연고 묘역을 돌아본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기억하고 돌보겠다.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가 박경수 상사의 묘비를 아루만지고 있다.

“보훈, 국가 헌신에 대한 존경...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 국가 위한 희생, 신분 차별의 억울함 있어선 안돼”

한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6년 카센터 사장을 꿈꾸던 채종민 정씨는 9살 아이를 구한 뒤 바다에서 숨을 거뒀고, 2009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황지영 행정인턴과 어린이집 급나래 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며 “2016년 성우를 꿈꾸던 대학생 안치범 군은 불이 난 건물에 들어가 이웃을 모두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영원한 그리움이 슬픔이지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용기가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의로운 삶이 됐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하루가 비범한 용기의 원천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조 활동을 하던 세 명의 소방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교육생이었던 고 김은영, 문새미 소방관은 정식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분들의 삶이 짧은 세대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전해져야 한다”며 “후손들이 선대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애국자와 의인의 삶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 아끼는 마음을 일깨워 대한민국 모든 이웃과 가족에 대해 큰 긍지를 느낀다”며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지키고자 할 때 우리 모두는 의인이고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애국영령과 의인, 민주열사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겠다”며 “가족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순국선열 추모일에 경정이러니?

현충일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전용경기장서 16회 경주
유성엽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사업 시행 지적

현충일을 맞아 온 국민이 순국선열을 기리며 애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인 국민체육공단이 사행사업인 경정을 개최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6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국조일인 현충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인 경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지적을 하고 나섰다.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업본부는 6월6일, 미사리 조정경기장내 전용경기장에서 정오부터 약 20분 간격으로 오후 6시까지 16회의 경주를 펼쳤다. 장외지점 17군데까지 합치면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18개의 도박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것이다. 경륜도 2015년 이후부터는 현충일에 경주를 해왔으며, 경마는 1999년 한차

레 휴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부처의 행정은 순국선열을 기리고자 후일로까지 지정한 현충일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온 국민이 조기를 걸고, 대통령이 직접 추모행사에 참여하여 애국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한쪽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합법의 모양새를 띤 도박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순국선열을 기리자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장을 개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합법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현충일 하루라도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을 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8~9일 사전투표 어디든지 가능

전북도선관위,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8~9일까지 이틀간 도내 24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

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압축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더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전북의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16.07%, 제20대 국선 17.32%, 작년 제19대 대선은 31.64%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진성 기자

사전선거운동·교통편의 제공 협의 선거구민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을 동원하여 C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게 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구민 B씨를 지난 5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거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B씨는 지난달 20일 C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30여명을 동원하고 그 중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안호영 의원, 무진장 농어촌공 주요사업 업무설명회 청취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는 지난 5일 지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에게 지사 주요사업 및 신규지구 선정 건의를 위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업무 설명회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진안 황금 및 장수 백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신규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신규지구 선정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